



제 2018-166호

베트남

방송 저작권 침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

하노이사무소

요약

- 방송 저작권의 침해 문제의 해결은 사용자의 협조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

주요 내용

- 2018년 9월, 하노이에서 베트남 저작권국 및 베트남 위성 텔레비전 회사 (K+),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방송기관의 권리 보호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함
- 워크숍의 목적은 저작권, 저작인접권에 대한 인식 제고로, 특히 방송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음
- 워크숍 참석자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관련 기관들의 대표자; 베트남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관련 대표기관, 방송 관련 기업들, 저작권국과 방송발전 정책연구원의 대표, 프랑스의 Canal+ 그룹, 베트남 텔레비전, 한국 SBS Contents Hub 텔레비전 등임
- 베트남은 국내 및 국제적 요구에 대응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규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. WTO 및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들은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오고 있으며,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. 동시에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 법적인 의무에 따라 이용하고 있음



- 디지털 시대 및 인터넷은 저작물, 공연, 음악, 방송 프로그램 등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으나, 동시에 디지털 환경 및 인터넷 환경에서 방송사를 포함한 권리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또한 발생시킴
- 해당 워크숍에서는 베트남의 법률 규정, 디지털 환경에서의 방송사의 권리 보호, 국내 기업과 국제기업의 협력의 시너지효과, 디지털 환경에서 방송사의 권리 보호의 도전 및 대책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방송사의 권리 보호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음
- 반면, K+ 방송국의 부사장인 Mr. Stephane Baumierd는 이러한 워크숍은 사용자가 저작권을 존중할 수 있는 의식을 향상시키며, 행사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통해 정부 관리기관과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,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

■ 평가

-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베트남에서 저작물 사용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기관 및 사기업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
- 특히 방송사 등 권리자 차원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- 한, 베, 프 3국의 방송사들이 권리 보호의 어려운 점 및 대안을 공유한 해당 행사는 권리자로서 더욱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험 공유의 장이 되었음

■ 출처

- <http://www.vnmedia.vn/truyen-thong-so/201809/giai-quyet-triet-de-vi-pham-ban-quyen-phat-song-truyen-hinh-cach-nao-614730/>